

VAN 기업화 전략

金 永 泰 에스·티·엠 사장



VAN사업의 개념

VAN이 산업으로 정착한 것은 그 역사가 타산업에 비해 매우 짧으며 사업에 대한 개념도 다양하다.

여러가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합하여 정의를 내려 보면 VAN사업이란 통신회선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구성된 네트워크에 컴퓨터와 통신장비 등의 시설을 묶어 수요자에게 부가가치를 첨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라 하겠다. 그 수요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공중VAN사업이라 하겠고, 특정한 간의 경우에는 특정 VAN 사업이라 하겠다. 공중VAN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여기서의 기업전략대상에서는 제외하고 특정VAN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코져 한다.

VAN사업의 경영환경

국내의 VAN사업에 대한 환경 요인들을 SWOT環境分析方法에 따라 민간기업이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는 사업상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경제, 사회, 법적인 제약조건 등의 외부환경에 의한 기회 및 위협을 간추려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강 점

-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산처리 경험
- 온라인 이용경험 풍부
- 합작선을 통한 기술전수 용이

약 점

- VAN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
- 이기종간의 통신 곤란
- 시설투자 비용이 크다.

전산망 발전방향 및 民間VAN 活性化방안

기 회	위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인 情報化 社會의 도래 • 수요자의 VAN에 대한 요구 증대 • 정부의 基幹電算網 추진에 따른 VAN사업의 기반 구축 • 정부의 정보산업에 대한 적극적 시책 • 기존의 네트워크이 없으므로 인한 체계적인 (표준화된) 네트워크 설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기반의 상대적 취약성(GNP, 국토, 우편량, 컴퓨터 보급율) • 정부의 VAN사업 규제(정부투자기업의 독점) • 통신회선의 안정성 결여 • 표준화 미비(한글, 업무절차, 양식) • 정보량의 절대부족 • 회선사용료가 비싸다.

한편, 국내의 VAN사업은 현재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미·일·한국의 VAN사업 비교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년 FCC의 제1차 컴퓨터 조사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처리서비스의 자유화 (혼합처리 분야) - 74년 VAN서비스업자 출현 (텔리네트사) - 75년 타임네트사 VAN사업 허가 - 79년 AIS/NET 1000 (AT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년 FCC의 제2차 컴퓨터 조사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서비스를 기본 서비스와 고도서비스로 구분 - 고도통신서비스의 자유화 - IBM IN 서비스 - AT & T의 정보처리분야 참여 허용 - 광통신 이용 - 위성통신망 이용 • 국제 VAN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VAN추진 • 광통신 이용 확대 • ISDN현실화(광대역) • 위성통신망 이용 확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년 1차 통신회선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회선 이용한 온라인 정보처리 허용 - 단말과 컴퓨터간의 통신망 허용 • 76년 1차 개방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컴퓨터 사용 허용 - 단말간 통신 허용 - 컴퓨터네트워크 구성 허용 - 그룹사간 컴퓨터네트워크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3년 2차 회선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N서비스의 민간개방 - 통신사업자의 분리 (기본서비스, 고도서비스) - 데이터 처리를 위한 회선이용의 자율화 - 중소기업대상상의 업무용 통신매개를 잠정적 허용 • 85년 전면자유화(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종 사업자 구분(설비 유무 기준) - 모든 분야의 민간기업 참여 허용 - NTT 민영화 - 제2전전(주), 일본 텔리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VAN 추진 • 광통신 이용 확대 • ISDN의 현실화(광대역) • 위성통신망 이용 확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일본		(주) 사업개시 • 87년 국제 VAN 허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3년도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X, DATA를 일반가입 전화회선(PSTN)에 첨가 - PSTN에 단말기 연결 가능 • 85 정보통신역무제공 승인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의 정보통신역무 제공 금지 • 87. 5. 28 국내 VAN개방 1단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긴밀한 자'에 한해서 민간기업 VAN 허용 • 관광예약 VAN 제주도지역 개통 • 國家基幹電算網 추진 • 그룹 VAN 추진 • 철강, 자동차, 의류업계등의 업종 VAN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DN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대역 : 1991년까지 (초기) - 중대역 : 1996년까지 (도입) - 광대역 : 2001년까지 (확장)

VAN의 기업화 전략

사업대상 확보 방안

사업대상 분야에 대한 침투단계를 설정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X축을 자사경쟁력으로, Y축을 業界魅力度로 잡고 각각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특정사업의 자사경쟁력 및 업계매력도 좌표를 구한후, 그림으로 나타내면 Portfolio가 그려지게 되는데 이는 생략한다.

이 사업에 대한 매력도가 높고 자사의 내부역량을 감안하여 자사경쟁력이 높은 산업분야의 특정VAN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통신망 구축 방안

통신망 구축전략을 단계적으로 열거해 보면 1단계에서

는 현재 허가 범위에서 情報通信役務提供者가 구성 가능한 통신망이며, 최단시일 내에 2단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동사용을 위한 다중화 장치 사용이 허가되어야 하고, 고속디지털 회선의 공급이 가능해 져야 한다. 3단계 전략은 자가무선설비사용의 허가, 국제VAN용 전용회선 사용의 허가, 외국네트워과의 연결기술확보 및 외국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그 전제가 된다.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VAN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사고나 컴퓨터 범죄를 예방하고 기밀누설을 철두철미하게 막기 위한 보안과 안전대책이 근본적으로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대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대책, 설비에 따른 대책, 그리고 운용관리 대책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러한 인력양성의 목표는 고용지향적인 인력, 기술지향적인 인력,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력 및 해외 선진기술을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양성방법으로는 통신기기에 관한 과정, 시스템엔지니어과정, CBI과정, 시스템프로그래머 과정, 오퍼레이터과정, 보수 및 유지에 관한 과정 등의 전문지식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VAN사업 개방에 대한 제언

통신수단 보급의 급격한 증가는 전국을 1일 情報生活圈에 이르게 하고 또한 정보의 무차별 보급에 의해서 수요자로부터 자기가 필요로 하는 情報(加工된 情報)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니드(Need)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각분야의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단이 되는 통신사업 및 정보통신(VAN)사업은 서비스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단순한 규모의 경제논리와 특정 민간기업에 의한 중요정보의 독점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가능한 한 사업영역이나 수단을 규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여기에 제시된 문제는 단순한 기우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수요자는 일반통신 방법에 의해서 제공되는 획일적인 정보를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형태로 가공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즉, 전문적인 情報通信事業者(VAN사업자)를 필요로 한다. 부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각종 데이터의 검증, 변환, 처리를 수반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는 각 기업이나 단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필요로 하게된다. 따라서 어떤 VAN사업자도 모든 VAN사업을 독점 또는 과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잘된 정보시스템이라도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VAN사업자는 VAN을 구축하려면 먼저 이 서비스를 구매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볼때 정보의 독점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지 못하다.

공중VAN을 이용할 때의 기준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특정 VAN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여러가지로 마련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기밀 누설의 가능성을 최대한 막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안보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정보의 기밀성에 따라 경제성이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정보통신(VAN)을 이용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산업체의 경우 신속정확한 市場情報, 競爭情報, 環境情報, 수주, 발주 등의 관리정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에게는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가계에는 더욱 편리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수요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경쟁에 의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촉진 될 수 있는 것임을 상기할 때, VAN사업에 가해져 있는 각종 규제는 조속히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

情報通信振興協會 입회안내

情報化 社會의 기반조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내 전산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업계지원책을 펴나가기 위해 출범한 저희協會는 電算網事業에 관련된 모든 업체 및 기관을 會員으로 맞아들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회원자격 :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자, 전산망사업자(H/W업체 및 S/W업체), 공중통신사업자등 전산망에 관련된 모든 기관 및 업체.
2. 가입비 : 50만원
3. 월회비 : 5만원(분기별로 납부)
4. 가입문의 : 협회사무국(전화 : 796-6444, 796-6555)